Ⅰ. 보험발전 간담회 개최 배경

■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보험산업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함.

- 첫째, 저성장·저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.

- 둘째, 금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,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신뢰 회복이 보험산업 지속성장의 중요한 경영과제로 부각
  - 공급자 위주의 사업관행,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고객신뢰 저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.
  - 금융소비자 만족을 지향하여 가치사슬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.
  - 이와 함께 소비자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,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.

- 셋째,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보험 위주로 성장하여 왔으나 겸업화가 진전되고 다른 금융업권의 상품과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역할 변화가 요구됨.
  - 보험산업은 보장성보험 등 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보다는 금융투자형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더 이상 보험의 특수성과

차별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.

-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인구구조 고령화라는 노후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합한 보험산업의 기회요인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.

■ 이러한 환경 변화를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한편, 소비자중심경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,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.

■ 또한 금융산업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보험산업의 향후 비전과 역할에 대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임.

■ 이에 보험연구원은 2011년 11월 27일(화) 프라자 호텔에서 보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 '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'를 개최하였음.

● 첫째, 보험산업 진단 및 미래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데, 주된 화두로는 ① 저성장·저금리 장기화, ② 소비자보호, ③ 보험산업의 비전과 역할 등이었음.

-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보험연구원이 간담회 화두를 선정·정리

● 둘째, 보험연구원 개원 2주년을 맞아 김대식 원장이 보험연구원의 비전과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설명하였고, 참석자들의 보험연구원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이 있었음.

■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원이 선정·정리한 세 가지 화두 내용과 함께 보험발전 간담회에서의 토론 내용을 정리하였음.

명사초청 간담회 참석 명단

-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(간담회 좌장)
- 유 관 기 관 :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
 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
- 보 험 업 계 : 신용길 교보생명 사장
  서태창 현대해상 사장
  나동민 농협생명 사장
- 학 계 : 김병주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
  오창수 한양대학교 교수
 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
- 정책 감독 당국 : 정지원 금융위원회 국장
 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
  이윤수 금융위원회 과장
- 언 론 계 : 위정환 매일경제신문 금융부장
  이익원 한국경제신문 금융부장

▲ 좌측 위로부터 이익원, 위정환, 나동민, 이봉주, 서태창, 오창수, 신용길, 안철경, 김병주, 문재우, 김대식, 김규복, 김수봉, 이윤수